

홀로노인들 웃음꽃 필 '스마트 쉐어하우스' 벌써부터 화제

도시재생사업 상징 할 원도산 핫 플레이스는?

주민 소득 보탬 힐링로컬푸드전문관도 기대 커

원도산 마을 주민들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제일 기대하는 핫플레이스로 스마트 쉐어하우스와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을 꼽는다.

최근 유럽, 일본등지엔 1인 고령화 가구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노인 공동주거시설인 시니어 쉐어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은 단순히 주거형태만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외를 방지하고 노인건강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선진국 시니어 쉐어하우스를 벤치마킹하고 여기에 IT기술을 접목, 노인 공동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할 스마트 쉐어하우스는 원도산 마을의 예상 핫플레이스 1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원도산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원도산 지역 일원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49명 중 17명(23%)이 독거노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원도산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주거환경 마련이 절실하다. 하지만 원도산마을 내 독거노인들이 스

로 새로운 공동주거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도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 쉐어하우스는 현재 경로당에 모여 여가를 보내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원도산 노인들에겐 희소식 중 희소식이다.

원도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마을 내 국유지와 일부 매입 사유지를 사용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스마트 쉐어하우스를 건설함으로써 노인 주거복지와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도산마을에 들어설 스마트 쉐어하우스는 공동 홈 조성, 공용주차장 및 부대공간 조성, 힐링 실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민소득에 기여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도 더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은 마을경제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로컬푸드 판매장, 공동작업장 등의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힐링 로컬푸드 전문관은 원도산 마을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작물, 광산구가 수년



원도산 마을 경로당의 오후 한 때, 마을 할머니들은 매일 함께 모여 점심을 먹고 화투놀이를 하거나 수다를 떠다. 스마트 쉐어하우스가 만들어지면 편리한 시설 속에 보다 쾌적한 공동 생활이 가능해진다.

전부터 역점 재배중인 우리밀과 우리밀 가공식품등을 도시민에게 직접 판매하여 주민소득 뿐만 아니라 생산 및 납품과정을

통한 주민사회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마을 전시관 조성, 로컬푸드 재배 교육장, 도시농업 체

험공간 등 공공시설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 된다. 이같은 사업들은 주민의견 추가 조사와

주민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세부 사업 내용이 충분히 변동될 수 있다. /박효정 학생기자

청수정 마을카페 거리, 한옥 폐가들의 세련된 변신

순천의 성공사례

원도산 마을 주민들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밖에 없어서 폐가를 빨리 없애고 카페나 마을 다목적 휴게소 같은게 생겼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러한 희망과 비슷한 사례로 전남 순천시 청수정 마을 카페 거리는 현재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모델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곳은 70년 된 폐가 한옥을 이용해 카페로 변신시킨 곳이다. 청수정 마을카페(사진 왼쪽)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수정 새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다.

이 곳은 마을카페 겸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면서 주민 화합과 소통의 공간이 됐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순천 영동 일변지',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된 '순천

부읍성 서문안내소', 식당에서 예술인 활동공간으로 재탄생한 '장안장작마당' 등이 생겨났으며, 당시 187가구에 달했던 빈집은 77가구만 남은 채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순천부읍성 안내소 안에는 마을 방송국, 도서실, 전시관 등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들어섰고, '장안 장작마당', '김혜순 한복공방' 등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일종의 '앵커 시설'로 조성해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다. 민간도 함께 움직이며 여러 점포가 새로 들어서 이른바 순천 '옥리단길'이 조성됐다.

서울 경리단길을 패러디한 '옥리단길'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공방, 카페, 공연장, 음식점 등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옥리단길 문화의 거리에는 폐가를 개조한 예술인들의 작업장이 눈길을 끈다. 빈방 곳곳에는 도심 뒷밭 가꾸기가 한



창이다.(사진 오른쪽) 이러한 공간들을 통해 유동인구와 매출이 늘고 관광객이 165% 급증했으며, 주민 만족도도 72%에서 91%까지 올랐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이 돼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아져 활력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원도산 주민들의 희망은 크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원도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주민 밀착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박효정 학생기자



웃음꽃 만발한 원도산마을 스마트 쉐어하우스, 노인고독 없는 건강한 원도산마을의 상징입니다